

보도시점 (전매체) 8. 28.(목) 16:00

##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1,000억원 규모로 출범

- 부산 지역에 중점 투자하는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결성식 개최
- 모태펀드 600억원 포함, 부산시, 부산은행, 기업은행 4개 기관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1,011억원 규모의 모펀드 결성
- 향후 모펀드의 출자사업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노용석 차관은 28일(목) 부산 시티호텔에서 열린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부산광역시에 중점 투자하는 부산 지역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 <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결성식 개요 >

- (일시) '25. 8.28 (목) 16:00 ~ 16:20
- (장소) 부산 시티호텔(부산광역시 연제구 신촌로 19)
-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부산광역시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 한국벤처투자 이대희 대표이사, 부산은행 노해동 그룹장, 기업은행 김인태 부행장 등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25년 지역모펀드는 강원, 경북, 부산, 충남에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에 이어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가 두 번째로 결성되며. 강원과 경북의 모펀드도 조속히 결성될 예정이다.

이번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는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마중물로 공급하고 부산시, 부산은행, 기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총 1,011억원 규모의 대형 모펀드로 결성되었다.

‘부산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9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하여 부산에 중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글로벌 해양·물류·문화 허브로서,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아시아의 주요 창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이번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를 통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벤처·스타트업에게 두터운 투자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	책임자	과 장	강신천 (044-204-7710)
		담당자	사무관	박병민 (044-204-7713)
			주무관	조세곤 (044-204-7715)

